

6월15일(월)/ 누가복음6:20-26

**제목: 복있는 사람**

예수님은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고(20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다(21절) ‘가난한 자’ 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자이다. ‘우는 자’ 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자이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이 ‘된’ 사람을 복 받는 자라 한다. 부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장수하는 자를 복 받은 사람이라 한다. 오늘날 21세기의 복은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요” “권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무슨 것이든 할 수 있을 것이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면 복이 있나니 저의 일생이 행복할 것이요” 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되느냐” 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가 복의 기준이라 하셨다. 인격에 따라,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돈을 쓰는 방법에 따라 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셨다. 어떻게 사느냐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부르고 웃는 삶이 찾아온다고 역설하셨다.(21절)

6월16일(화)/ 누가복음6:27-36

**제목: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27절)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28절) 누가 자기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29절) 누가 자기 물건을 훔쳐가거든 돌려 달라 하지 말라 하셨다.(30절)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는가? 혹시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너무 모르시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인간들에게 낙관적으로 적용하라 하시는가? 우리는 어디서 이 해답을 찾을까? 그 해답은 ‘성령의 능력’ 에 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이 명령을 수행 할 수 없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목사도, 빈민가에서 일생동안 사랑을 실천한 테레사수녀도 성령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베푼 사랑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하셨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내가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할 때는 가능하다. 이 원수사랑 실천은 인간의 영역에 속해있지 않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

6월17일(수)/ 누가복음6:37-42

**제목: 비판만하는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지 말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셨다(41절) 어떤 부류의 사람은 자기는 항상 옳고 남은 항상 부정하고 비판한다. 시종일관, 매사에, 누구에게든지 늘 그렇다면 그는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나르시시틱적인 장애자이거나 아니면 ‘투사’ 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결점이 많은 사람일 수록 타인의 모순과 결점을 잘 보는 경향이 있다. 유달리 어떤 특정한 모순과 결점이 잘 보인다는 것은 실은 그것들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안에 있는 모순과 단점과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에게 먼저 선제공격을 한다.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다루므로 자신은 만족과 위로와 안심을 얻는다. 우리는 혹시 매사에 비판만 일삼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 장애이다. 고쳐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양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항상 친구를 많이 만든다.

6월18일(목)/ 누가복음6:43-45

**제목: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셨고(43,44절) 선한 마음 또한 선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고 하셨다.(45절)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온다.(45절)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뇌 쪽에 있는가? 가슴 쪽에 있는가?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마음은 육체적 기관이 아니다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이다. 인간의 마음은 두 존재만이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다. 그래서 마음은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가 제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마음을 항상 하나님이 손대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거룩과 성결이 나온다. 그러나 마음을 항상 사탄이 손대는 사람은 그 속에서 범죄와 악독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이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이 마음을 당신이 손 대주십시오” 라며 간구해야 한다. 자기의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매일 매일 간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사탄이 점령하기 때문이다.

6월19일(금)/누가복음6:46-49

### 제목: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는 사람처럼 늘 그의 삶이 견고하지만 (47,48절)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다.(49절) 말씀을 듣고도 행함 없이 귀와 머리만 즐기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다. 이런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결심과 노력과 땀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사는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이다. 모래집을 짓는 것은 수월하다. 그러나 이 터는 장차 파도가 오면 곧바로 무너진다. 쉬운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자는 짧은 안목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땀과 정성을 투자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장래를 잘 대비하는 긴 안목의 소유자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현재나 내세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해 놓는 길이다.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고 사는 셈이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